

Ⅲ.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

한 덕 천
(중도훈련원, 수위단회 전문위원)

목 차

I. 머릿글	25
II.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과과정	26
III. 실천교학과와의 운용	28
IV. 교과과정의 운용	29
V. 교육(학습)방법	29
VI. 마무리 글	30
부록(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과과정)	32

I. 머릿글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교단적 실력의 배양, 사회교화 등 각 분야 교화 발전의 도모, 창립 초기 생동하던 훌륭한 교단 정신의 발전적 계승,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단 제도 및 행정의 정착 등을 통하여 세계적 종교로의 발돋움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고자 『教育이 教運이다』는 슬로건 아래 교육발전위원회가 태동하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를 제시한 이후 원불교 교역자 양성의 교과과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에서도 5·31교육제도 등으로 교육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부터 2년제의 대학원 과정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단설 대학원을 목표로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 몇 차례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단설대학원제도가 유보되면서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원기78년부터 6년제 교과과정을 편성하도록 제시하였으나 원기81년 후반기에야 계획안이 제시되었고, 충분한 검토 과정이 없이 원기82년부터 시행하게 된 과정은 인력의 문제였겠지만 교육에 대한 교단적 관심을 가름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게나마 수위단 교화 분과 전문위원들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실상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잠깐의 방문으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대학원 교과과정도 나열되어 있는 교과목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전문위원 중에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일부 있어 다행이지만 교과과정은 세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검토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대학원을 방문한 뒤 위원들이 나누었던 의견들을 주로 정리하고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II.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의 교과과정

교육발전안에서는 6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학교과와 서원교과에 대한 배정 비율을 60대40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교학교과 60% 가운데 40%는 실천교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원교과도 40% 가운데 20%는 특수교과(교단 정신의 체득, 훈증훈련등)를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학부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천 교과에 대한 비중을 높여 현장 교화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발전안은 대학원 과정을 학문 중심의 교학교과 과정과 신앙·수행 생활 중심의 서원 교과 과정으로 구분하고 경전교학, 교의교학, 역사교학, 실천교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전교학은 ①기본적인 교서 해석학 ②바른 이해, 깊은 이해, 폭넓은 이해 ③바른 해석, 깊은 해석, 폭넓은 해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의교학은 교리를 사상 이론적으로 정리(교조론, 일원상론, 신앙론, 수행론,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 미래관, 인성관, 직업관, 역사관 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학은 ①교단사 연구(교리, 교단, 조직 기관, 인물 등) ②역사적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천교학은 ①교리를 수행에 응용할 원리를 계발 ③교화 현상에 대한 응용 원리 계발로 규정하고 그 예를 교무학, 설교학, 교화상담학, 교당 행정학, 교당관리학, 교당과 지역사회, 계층별 교화론, 종교교육학 등을 들고 있다.

교발위에서는 60학점을 이수하도록 제안하였는데 현재 대학원 과정은 50학점으로

하향 편성하였다. 이는 60학점이 실시 학생들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며, 일부 위원들은 이 학점도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대학 대학원의 기준이 아닌 한국의 종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들의 학점 이수 기준은 기독교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과정의 이수 학점을 살펴보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경우 필수과목 65학점, 선택 과목 35학점 이상으로 100학점 이상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신학대학교의 경우 95학점(기초필수과목 62학점, 전공과목 12학점, 선택 과목 15학점, 논문 6학점), 감리교 신학대학교원의 경우 97학점 이상, 총신대학교의 경우 100학점, 서울가톨릭신학대학의 경우 111학점(필수 97학점, 선택필수 32학점) 등으로 교발위에서 제시한 2년과정동안에 60학점은 비슷한 수준으로 학점을 줄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

교육발전안의 교과과정에 대한 편성 기준은 교과과정 분류에 모호한 개념이 있어 현재의 교과과정을 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자의적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교학교과	실천교과
학점 비율	44%(22학점)	56%(28학점)
과목	경-정전연구1,2, 대중경연구1,2 교-정산종사법어연구, 초기교서연구 역-창립인물사연구 기-유서강독, 불전강독,도덕경,한국근대 사와 신종교	설교연습1,2, 성가1,2, 어린이교화연구, 학생교화연구, 청년교화연구, 설교연습1,2, 교화특강1,2,3, 교당운영성장론, 예전실습, 교도훈련법, 교화상담, 교단행정

위의 표에서 보면 현재의 교과과정은 교발위에서 제시한 교학교과와 서원 교과의 비율을 60:40으로 편성하고, 교학교과는 실천교과의 비율을 20:40으로 실천교학에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교발위의 권장 학점 비율인 34:66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학교과에 10%를 더 반영하고 있다. 이런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발위의 학점을 임의적으로 10학점을 줄이고, 교과 배정도 그 권장 비율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현재 대학원 교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Ⅲ. 실천교학과 운용

교발위에서는 실천교학을, 교리를 수행에 응용할 원리 개발, 교화 현상에 대한 응용 원리 개발, 교무학, 설교학, 교화상담학, 교단 행정학, 교당관리학, 교당과 지역사회, 계층별 교화론, 종교교육학등을 실천교학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실천교학분야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원불교의 실정에 비추어 실천교학과의 개념 정립은 좀더 연구 과정을 거쳐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실천교학의 교수요원 양성이나 확보는 실천교학분야의 정립과 교육효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전문위원들이 의견교환 한 「실천교학」의 개념 정립에 대해서도 교단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천교학은 '응용할 원리'를 개발하여 그 원리를 현장 교화에 직접 적용하여 실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혹자는 실천교학을 '기능'습득 과정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기능습득 교육이 실천교학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능 습득 교육은 스스로 교역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인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교화 기능은 교화의 보조 수단은 될지언정 교화의 주체적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실천교학에 해당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원 과정의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의 과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천신학-기독교교육사상연구, 목회심리치료법, 설교신학문제연구, 설교사연구, 목회신학연구, 정신질환문제연구, 현대설교 신학자연구, 성경교육방법론연구,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목회연구,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설교의 비교연구, 설교의 역사, 교회력과 설교, 성례전연구, 장로교예배, 칼로저스의 상담방법, 일반상담의 이론과 실제, 목회상담실습, 목회상담연구, 교역론 연구, 교역관리론, 예배와 예전, 설교비평연구, 교회개발론, 교회 지도자론, 교회선교론, 임상목회학, 교역사례 연구, 선교사례연구, 목회실기 연구, 농촌교회 목회론, 도시교회 목회론

●선교신학-교화와 선교, 선교신학 방법연구론, 비교종교학, 도시선교원론, 선교와 문화, 선교역사 접근방법 연구론, 현대선교신학, 선교의 이론과 실제, 교회성장이론, 타문화권선교와 커뮤니케이션, 선교와 무속종교, 전도학, 교회와 선교, 아세아 선교운동사, 타문화권 선교실습, 제3세계 선교신학, 공산권선교세미나

IV. 교과과정의 운용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식의 반감기는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다. 이 말은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지식의 생명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짐에 따라 효용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과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발된 교육과정의 수정 및 보완도 빈번하게 전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의 생명력이 짧아지고 다품종 소량 교육과정이 요청되는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단에서도 사회의 요구와 교역자의 적성 등을 고려한 다양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획일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시설이나 교수요원의 부족 등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되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비판적 문제의식과 창조적 끼가 동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창의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학부에서 교과 선택의 기회를 통해 각자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획일화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V. 교육(학습)방법

대학원 과정은 학부과정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력, 탐구력,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부와 같은 교육 방법으로 교수에 의해 일방통행식 주입식 교육은 탈피되어야 할 것이다.

세미나 형태의 교육 방법과 현장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키고 받는’ 교육에서 ‘스스로 하는’ 학습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21세기의 미래는 환경 변화가 정보화, 창조화, 학습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그 결과로 전통적인 교

육 패러다임인 ‘시키고 받는’교육에서 각자가 찾아서 ‘스스로 하는’ 자율적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가리키는 강사 중심에서 배우는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기능 및 형식 중심에서 실적의 성과 중심으로, 교육생의 집단특성 중심에서 학습자의 창의, 개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획일화에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차별화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타율과 획일화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교육장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률적, 규격화 교육에서 다원화된 현장·적시 교육으로, 소품종 다량 교육과정에서 다품종 소량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여 중앙집중식 교육에서 분산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소위 ‘닫힌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육부문의 학습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이 개편됨과 동시에 이를 전달하는 형태나 방법 측면에서도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VI. 마무리 글

9개월간 교육발전위원회가 최대한 역량을 모아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원기 84년부터 새로 시행된 예비교무 교육제도에 의하여 양성된 교무배출은 교단 각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단은 세계적 종교로의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새 교무들은 교단 제3대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여 안으로 교단 전통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교화역량을 발휘하여 교화 활성화를 이룩함은 물론, 한국 사회와 세계 속에 후천 시대 개벽 회상으로서의 원불교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여 개교 백주년에 걸맞은 교단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는 이런 예상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더불어 설정했던 예상들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토의를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에 대한 비전문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통해 전문위원의 한계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이다.

교육발전안에서는 “예비교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발전안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13

인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교육부장, 육영기관장 4인, 재가 교육분야 종사자 3인, 교화부장, 총무부장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왔다. 최근에 개정된 「원불교교육규정」에 의하면 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예비전무출신 교육과 교립학교 육성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교육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교립학교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을 교정원장이 제청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하도록 위원구성에 권위가 부여되었는데, 교립학교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된 교육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예비교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 담당자들이 곧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교무 교육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심의위원회〉는 이를 재 심의하여 교단의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한 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둘째, 교수요원의 확보와 정예화이다.

교발위에서는 예비교무 교육혁신의 성패는 예비교무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을 비롯하여 예비교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적시하고 사명감과 헌신적 협력에 바탕한 지속적인 교육혁신운동의 전개를 요청하였다. 현재 대학원에 대한 많은 문제 중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교수요원의 확보와 정예화라고 생각된다.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 이념이 투철하고 또한 교과과정들을 실시 교수할 수 있는 요원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학원 과정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원과 교육부에서는 전교역자를 대상으로 교수요원 선발과 또한 양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권의 독립과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책임교육이 확립될 수 있고 교육의 정체성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담당자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정책과 교과과정이 효율적으로 살아있는 변화를 계속시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여건을 조성해주어야한다.

셋째, 시설 확충이다.

현재의 대학원 건물은 원래 숙소용으로 구조가 설계되었기에, 구조 변경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대학원에 걸맞은 교육을 하기에는 불편하고 부족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을 해야 되리라 본다.

넷째, 재정 자립이다.

현재와 같은 총부지원금만으로는 대학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교육기자재나 교수요원의 확보나 양성등에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영세적인 재정으로는 소정의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다.

(부록)

교과과정 (안)

교학교과

순	학기	구분	교과목	담당교수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1	1 (15)		정전연구 1 창립인물사연구 유서강독 성가 1 어린이 교화 연구 교화특강 1 정산종사법어연구 교화상담		2 2 2 1 2 2 2 2	2 2 2 1 1 2 2 2	0 0 0 1 1 0 0 0	선훈련P (원내)8일 산업훈련P (수계농원) 7일
	2 (14)		대종경 연구 1 초기교서 연구 불전강독 학생교화 연구 설교연습 1 교화특강 2 교당운영 성장론		2 2 2 2 2 2 2	2 2 2 2 1 2 2	0 0 0 0 2 0 0	선훈련P (원외)7일 만덕산 틀수기관 교화실습P 6일
2	1 (14)		정전연구 2 도덕경 한국근대사와 신종교운동 청년교화 연구 설교연습 2 교도훈련법		2 2 2 2 2 2 2	2 2 2 1 1 1 1	0 0 0 1 2 2 1	선훈련P 8일 교당 교화실습P 40일
	2 (7)		대종경 연구 2 성가 2 교단행정 교화특강 3		2 1 2 2	2 0 2 2	0 1 0 0	신철교학 논문발표P

결 어

이상과 같이 재가 교역자 훈련과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짧은 시간과 부족한 자료로 충분한 연마가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나은 연구의 조그만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화 발전에 있어 재가 교역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개신교를 비롯해 타종교들도 오래 전부터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재가 교역자들이 교화 일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들이 일선에서 각자의 맡은 바에 따라 활발히 활동해 준다면 우리 교회는 무서운 힘으로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서 재가 교역자 훈련에 대한 일선 교당의 교무들과 교정 당국의 굳건한 의지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훌륭한 재가 교역자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